

맥쿼리, 2순환도로 '부적절 계약' 수면위로

두암IC~소태IC 1구간 '혈세 먹는 하마'서 '비리 복마전'으로
2016년 재구조화 협약 뒷돈 수수혐의 광주시청 간부 숨진 채 발견
경찰, 다른 공무원·협상 중개인·사업자까지 로비 수사 확대

‘혈세먹는 하마’라는 비난을 받은 광주 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소태IC·5.67km) 최소 운영수입보장(MRG)사업이 ‘비리 복마전’으로 치닫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경찰은 해당사업의 재(구조화)협약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광주시 전 간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관련 수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내에서도 수년째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해당사업을 철저히 수사해 비리 연루자가 있다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시 북구 영산강 인근에서 전 광주시 간부공무원 A(61)씨가 숨진 채 발견

됐다. A씨 주변에서 발견된 서류봉투에는 A4용지 10장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와 유서가 들어있었다. A씨는 자필로 “최선을 다했다. 명예가 떨어졌다.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으려 한다”는 내용 등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광주시에서 정년 퇴직한 A씨는 2016년 광주2순환도로 1구간 운영업체인 광주순환도로투자(맥쿼리)와 민간투자 보증을 위한 재구조화 협약 담당자로 근무했다. 당시 업체와의 연결고리로 의심받고 있는 중개인 B씨로부터 6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광주경찰청의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최근 A씨를 2차례 조사한 뒤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입건해 추가 소환

할 방침이었으나 A씨는 지난 12일부터 잠적했고, 결국 지난 16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일단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또 숨진 A씨와는 별개로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중개인 B씨를 중심으로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B씨는 한 때 현 광주시장의 옛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인물이다.

경찰은 A씨가 B씨로부터 맥쿼리측에 유리한 협상이 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그러나 경찰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가족통장에 있던 6000만원의 자금을 대해서는 “개인채무를 변제받은 자금 및 다른 시정업무에 대한 자료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B씨가 광주시와 맥쿼리측 협상의 가교역할을 했고, 이 과정에서 맥쿼리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A씨에

게 건넸을 것으로 보고 수사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경찰은 또 B씨를 상대로 재협상 과정에서 대가성과 특혜성 여부를 비롯한 맥쿼리측과의 관계 등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히 B씨와 맥쿼리측이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기 위해 A씨를 비롯한 다른 공무원에게도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이 이번 수사로 맥쿼리 관련 공무원 로비 사실을 밝혀낸다면 전국의 유사한 맥쿼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도중 사망사건이 발생해 안타깝지만, 재협상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규명하겠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수사 대상이나 폭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명박 구속영장

검찰, 혐의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내일 실질심사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등 혐의로 수사해온 이명박(사진·77)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이 전 대통령이 객관적인 물증에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관계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중범인 김 전 기획관 등 핵



심 측근들이 구속돼 이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통상적인 미체포 피의자 심사 일정에 준해 이르면 21일 열릴 전망이다. 다만 사건 관련 수사기록이 방대해 일정이 하루나 이틀 늦게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심사를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영장심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볼 수 있는지, 국정원 특별비 등 뇌물로 의심되는 자금이 오간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이 옛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맨 왼쪽)이 19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찾아 금호타이어노동조합 집행부와 면담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해의 매각 안되면 법정관리”...이동걸 산은회장 최후통첩

노조와 대화는 계속할 듯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해의 매각이 회사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해의매각 철회’를 고수하고 있는 노조측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30일 ‘부도’와 ‘법정관리’에 돌입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9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30일까지 노조가 사측과 합의한 ‘경영정상화 계획’(자구안)을 제출하지 않고 해의자본 유치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법정관리로 들어가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해의 매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금호

타이어 노조측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정관리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회장은 앞서 노조와의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의견을 피력하며 이해를 구했으나 해의매각을 반대하는 노조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면담 후 “금호타이어의 현재 경

영악화 상황 진단에 대해서는 노조와 채권단이 공감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와 이 회장은 대화를 지속할 뜻을 밝혀 파국을 막기 위한 막판 협상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 회장은 “금호타이어 문제는 지역 경제, 500여 협력사, 공장 주변 지역업자의 문제이며 국내 타이어산업의 문제로,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문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

오늘부터 3일간 대국민 설명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 압박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한다. 〈관련기사 4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앞서 청와대는 20일부터 사흘간 개헌안을 주제별로 순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발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국회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합의하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거나 철회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국회 논의를 가속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4월 임시국회 회

기에 국회를 찾아 연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부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대통령은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포트홀’ 도로 곳곳이 지뢰밭 ▶6면
- ‘미세먼지’ 반려식물 키워보자 ▶18면
- ‘여제의 귀환’ 박인비 우승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가톨릭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양식 창업 5대 고민!!

해양수산부가 해결해 드립니다.

청년인데, 창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블루오션, 바다에서 창업하세요. 건강한 먹거리 생산·유통·가공하여 꾸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배우는 비용이 걱정입니다.
배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을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합니다.

귀여·귀촌해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미 귀여·귀촌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들에게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창업해서 잘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창업자 간 네트워크를 구성, 사후 컨설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연고도 없고, 기술도 모릅니다.
해양수산 각 분야 전문가들과 선배 어민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교육기관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실습하면서 기술은 물론 노하우까지 전수 받을 수 있습니다.

큰정거미새우 양식에 나선 오수형 (38)
강원도 홍천 홍천원새우 대표.
“이론교육부터 실습, 양식장 견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오는 9월 홍천지역축제기간에 수확해 큰정거미 새우를 홍보할 생각입니다.”

김 양식 창업하는 이범석 (38)
전남 고흥 청년수산 대표.
“전남대 양식생물학과를 졸업한 후 티지에서 생활하다가 귀어를 결심하고,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원다리새우 양식에 나선 조현곤 (52)
경남 고성 인영원새우 대표.
“교육을 수료한 후 250평의 양식장에서 원다리새우 2.2을 출하했습니다. 올해는 1,500평으로 늘려 20 출하와 함께 실내그린 양식장을 건립해 연중 출하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양식 창업, 이제 같이 고민합시다. 후배님들.

경남·전남 어촌특화지원센터 내 One-Stop 친환경양식창업지원센터가 올 상반기 양식업 창업 및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 이전 및 창업 지원, 컨설팅 교육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KFPA 한국어촌어항협회
Korea Fisheries Infrastructure Promotion Association

문의처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 055-642-5702~4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062-220-0555